

태풍 힌남노 ‘목 타는 전남 섬’에 단비 뿌려...식수난 해결

제한급수 연명 ‘완도 보길·노화도’에 200mm이상 비 쏟아져

보길·노화도 7000여 주민 식수원 부황제 저수율 6%→65%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랜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전남 섬 지역에 단비를 뿌렸다. 식수원 고갈로 제한급수와 육지에서 실어온 물로 연명하던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 지역 식수난이 해결되게 됐다. <관련기사 5면>

6일 전남도와 완도군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의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보길도에 205mm의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오늘(6일) 오전 9시 기준, 보길도와 노화도의 식수원인 부황제 저수율이 6%에서 65%까지 크게 상승했다.

완도군은 저수율 증만으로 빠르면 7일부터

제한급수를 해제할 예정이다.

보길도 내 간헐적 단수 조치는 지난 3월10일을 기점(2일 급수·4일 단수)으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3567가구·주민 7000여명이 거주하는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의 식수를 공급하는 부황제는 지난해 9월까지의 저수율 100%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강수량이 453mm로 평년 대비 약 56%에 불과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식수난이 이어졌다.

지난해 겨울 가뭄이 울어름 마른장마까지

이어지면서 7000여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해진 부황제 저수율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제5호 태풍 송다와 제6호 태풍 트라세의 영향으로 72mm의 비가 더 내렸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들어서 현재까지 ‘2일 급수·8일 단수’로 식수난이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 몰렸다가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단비로 해결을 맞게 됐다.

현재 전남도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 부족

으로 도서(섬)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자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 구축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선 상수관로 31km(해저 9.2km·육상 21.8km)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총 4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화·보길 지역뿐 아니라 해저관로를 경유하는 녘도, 백일도, 흑일도, 마삭도까지 총 6개 섬 8000여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광주시, 코로나 방역 ‘올인’

광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동안 촘촘한 코로나19 방역·의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인 만큼,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의료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명절 연휴기간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무지구 5·18 민주화운동기념관에 설치한 시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정상 운영키로 했다.

씨엠삼성병원과 북구미래야동병원 등 2곳의 의료상담센터와 자치구별 행정안내센터 5곳도 연휴 기간 중단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윈스톱 진료기관 총 99곳에서 의료 공백없이 확진환자를 진료하고, 치료제 담당약국 총 48곳을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 치료병상과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565개)도 확보, 상시 치료체계를 구축했다.

응급의료체계도 마련했다. 6개만 48명으로 구성된 시·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 의료기관 20개소와 응급의료시설 4개소는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문 여는 의료기관 810여 곳과 약국 700여 곳을 지정해

코로나19 이외의 일반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재환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몰고온 강한 비바람에 쓰러짐(도복) 피해를 입은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대파 재배단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농업인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6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의 한 배 과수단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몰고온 강풍에 수확을 코 앞에 둔 배 과수단지에서 대규모 낙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부가 망연자실 낙과를 쳐다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태풍 ‘힌남노’ 내습...전남 농촌 피해 ‘낙과·쓰러짐’ 잇달아

나주 금천면 배 과수단지 350ha ‘최대 피해’...수산분야 추후 집계

결실의 계절 추석을 코앞에 두고 강한 비바람을 몰고 내습한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전남지역 농·어촌에 크고 작은 피해를 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집계 기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전남지역 농경지 1124ha 면적에서 작물 쓰러짐(도복)과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진도 70ha, 순천ha, 보성 45ha, 해남 45ha, 고흥 40ha 등이다.

작물별로는 배 364ha, 콩 53ha, 배추 42ha, 대파 30ha 등으로 파악했다.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진도에선 고군면 지막리 대파 농경지 30ha가 강풍에 쓰러지는 도복 피해가 발생해 생산량이 10~30%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남에선 배추 재배단지 30ha에서 모종을 정식한 배추의 뿌리 활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풍에 의한 쓰러짐 피해가 났다.

갑작스런 폭우로 고흥·순천·여수에서는

농경지 24ha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침수 면적은 고흥·순천 각 10ha, 여수 4ha 등으로 집계됐으며 오후 2시 이후 배수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밤새 강한 비바람에 의한 과수재배지 578ha에서 낙과 피해도 잇달았다.

지역별 낙과 피해 규모는 나주 350ha, 순천 50ha, 신안 37ha, 보성 35ha, 함평 30ha, 영암 20ha 등이다.

작물별로는 배 544ha, 무화과 16ha, 사과 9ha, 단감 5ha, 석류 4ha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피해는 나주 금천면 배 과수단지에서 발생했다. 350ha에서 낙과 피해가 났다. 순천 낙안배 재배단지 50ha, 보성 벌교배 재배단지 35ha 등에서도 과일 떨어짐 피해가 났다.

농업시설물은 고흥 수확을 마친 시설하우스 0.06ha가 전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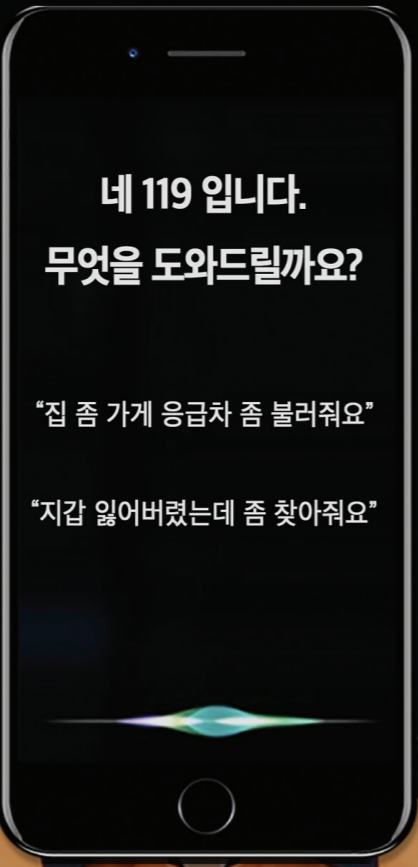
수산 분야 피해는 여수 굴·홍합 양식장 2곳, 완도 전복 양식장 1곳 등 양식장 3곳에서 피해가 났다.

전남도는 수산분야 피해는 수산생물의 생태 특성상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본 후 정확한 집계를 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